

우리나라 신대체 요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방 병 기

1980년 대한신장학회 발족할 당시, 우리 나라 전국의 혈액투석기는 84대, 투석 환자는 682명이었으나 20년이 경과한 지난 1999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혈액투석기는 4,380대, 투석환자는 복막투석을 포함하여 19,900명을 추산하여 되었으니 신대체요법은 다른 어느 질환군 보다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다른 나라의 유병률을 고려하여 보면 지속적인 빠른 증가가 예상되는 새로운 환자군이다. 또한 이 말기 신부전 환자는 지속적인 유지 신대체 요법을 시행 받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사회적, 경제적인 중요성이 매우 큰 환자군이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1) 말기 신부전환자의 발병율, 유병율, 원인 신질환, 사망률, 합병증, 사망원인 등을 파악하여 의학적 수준 향상 및 치료지침을 확립하며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대체 요법의 내용을 파악하여 의학적 수준 향상 및 치료지침을 확립하며 3) 의료정책과 의료보험수가 책정 및 뇌사자 장기이식의 지침의 근거자료를 얻는 등의 목적으로 신대체요법에 대한 전국적인 등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985년부터 신장학회 사업으로 매년 설문지로 조사하여 오다가 1994년부터 전산화를 추진하여 1996년 1차 프로그램, 1999년 2차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향후 전국의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1999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인공신장실은 267개

소이며 혈액투석기는 4,380대, 혈액투석환자는 15,900여명, 복막투석환자는 4,400여명으로 추산되며 1998년의 신대체요법 환자의 유병률은 506.7명/백만명, 발병률은 89.3명/백만명으로 계속적으로 매년 약 15%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원인 신질환은 당뇨병이 가장 많아 38.9%를 차지하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령환자의 증가 및 여자환자가 비율의 꾸준한 증가가 관찰되며 거의 모든 환자가 3회 이상의 충분한 투석과 erythropoietin투여를 받고 있고 bicarbonate투석액을 사용하고 있다. 신장이식 환자 비율은 공여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27%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혈액투석중 합병증 및 사망원인은 심혈관계 질환이 58%, 5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복막투석에서는 감염증이 주용한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32%). 투석환자의 생존율의 통계는 자료수집의 한계성이 있으나 3년 생존율이 92.5%로 조사되었다.

2000년 2월부터 시행된 장기 이식법에 의한 수여 대기자가 등록 및 뇌사자의 공정한 장기 배분에 의하여 향후 신장이식이 더욱 활발하여질 전망이며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요법의 수준도 high flux dialyzer 사용 및 향상된 복막 투석액의 사용, 자가 혈액투석 등의 발전이 예상된다.